

광주일보 11기 리더스아카데미 **변진섭** 과 함께 한 10월의 마지막 밤



방송인 민재은(오른쪽)씨의 사회로 진행된 변진섭 토크 콘서트. 가수 변진섭이 지난 31일 광주시 남구 어반브룩에서 열린 제11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변진섭과 함께하는 10월의 마지막 밤' 행사에서 주옥같은 히트곡을 열창하고 있다.

“노래가 주는 힘·따뜻함을 느껴 보세요”

“불빛 없는 거길 걸으며/해매이는 너에게/꽃 한 송이 주고 싶어/들녘 해바라기를/새들은 왜 날아가나/바람은 왜 불어오나/내 가슴 모두 태워 줄수 있는 건/오직 사랑뿐 오직 사랑뿐~”

감미로운 사랑노래를 들으며 시작된 시월의 마지막 밤. 가수 변진섭을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한 1집 수록곡 '네게 줄 수 있는 건 오직 사랑 뿐'이 흘러나오자 소녀(?) 팬들의 환호가 쏟아졌다. 이어 '희망사항'을 부르자 익숙한 듯 따라부르며 박수로 화답했다.

제11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변진섭과 함께하는 10월의 마지막 밤'이 지난 10월 31일 오후 7시 30분 광주시 남구 입암동 복합문화공간 '어반브룩'에서 열렸다. 이날 공연은 발라드 가수 변진섭이 80~90년대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들을 노래하고 방송인 민재은씨의 진행으로 그의 음악 이야기를 들어보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국내 최초 공식 밀리언셀러를 달성한 발라드 레전드 변진섭은 발라드라는 용어가 자리잡지 못했던 1980년대 후반 가요계를 평정하며 발라드라는 용어를 대중화시키는데 공을 세우며 언론에서 처음으로

80~90년대 풍미 '발라드 황태자'가 들려준 노래·토크 콘서트
국내 첫 밀리언셀러·골든디스크 신인상+대상 동시 수상 기록
“체력 관리로 변함없는 목소리 유지... 12일 광주서 또 만나요”

로 '발라드 가수'로 불리었다.

1988년 1집 '홀로 된다는 것'을 발표하고 '그대에게', '너무 늦었잖아요', '새들처럼' 등 수록곡들이 차트 상위권에 오르며 데뷔 앨범부터 큰 인기를 받았다. 이 앨범은 18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면서 국내 최초 밀리언셀러를 기록했다. 골든디스크 신인상과 대상을 동시에 받은 최초의 기록도 세웠다.

“제 입으로 얘기하는 게 민망하지만 그대의 인기는 굉장했죠. 지방에서 올라온 팬들이 집앞까지 찾아와 늦은 시간까지도 돌아가지 않고 있자 어머니가 설득해서 돌려보내기도 하고 끝까지 버티는 학생들은 인근 숙박업소에 얘기해서 재워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나날들이 반복되었죠.”

변진섭은 노래를 좋아해서 음악의 길로 들어섰지

만 사실 가수가 되겠다는 꿈도 꾸지 않았고 스타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합주하고 노래하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팀을 만들었어요. 완전히 음악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5남매 중 막내인 제가 공부도 곧잘 해서 부모님의 기대가 컸는데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하니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대학교 입학하고도 음악을 계속하던 그는 부모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앨범을 냈다. ‘독집’ 앨범으로 냈던 1집 ‘홀로 된다는 것’이 소위 ‘대박’을 터뜨렸고 결국 ‘발라드 황태자’의 길을 걷게 됐다.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목소리를 유지하는 비결이 있냐는 MC의 질문에 변진섭은 “특별히 목관리를 따로 하지는 않는다”며 “많은 가수들이 그렇지만

만 체력관리를 잘하면 목소리는 저절로 따라온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MBN 오디션 프로그램 ‘오빠시대’에 심사위원으로도 출연하고 있는 그는 방송 보다는 공연 위주로 활동하며 팬들과 만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성남을 시작으로 ‘2023 변진섭 콘서트 : 변천사’ 전국 순회 공연을 진행하고 있으며, 광주 공연은 오는 12일 오후 5시 5-18기념문화센터에서 펼쳐진다.

활동 당시의 추억과 최근 근황을 전한 그는 히트곡 ‘홀로 된다는 것’, ‘새들처럼’, ‘너에게로 또 다시’를 들려주며 원우들의 호응을 이끌었고, 앵콜곡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거죠’를 열창하며 무대를 마무리했다.

“3년 전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더 이상 공연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 과정이 지나고 다시 공연을 하면서 노래가 주는 힘이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특히 이 곡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부르면서 노래가 주는 따뜻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사진=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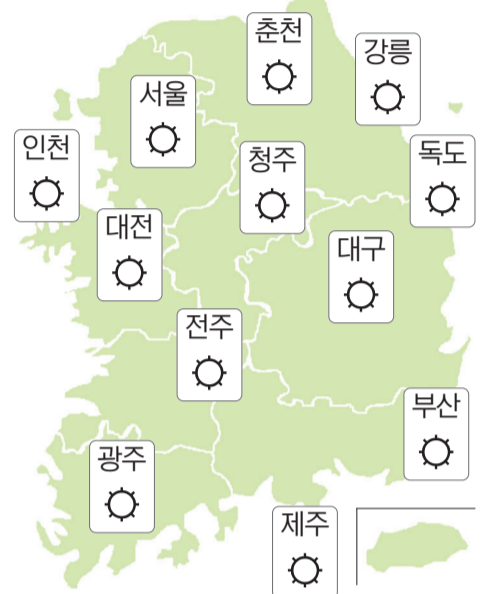
해돋이	06:54	달뜨기	20:53
해질	17:38	달짐	11:28

왜 이리 덥지?

맑고 더운 날씨 이어지겠다.

광주	맑음	15/26	보성	맑음	10/26
목포	맑음	17/24	순천	맑음	12/28
여수	맑음	16/24	영광	맑음	14/25
나주	맑음	11/26	진도	맑음	14/25
완도	맑음	16/25	전주	맑음	15/26
구례	맑음	10/26	군산	맑음	16/25
강진	맑음	13/26	남원	맑음	11/25
해남	맑음	13/26	흑산도	맑음	17/23
장성	맑음	12/26			

◇ 전국 날씨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 (m)	파고 (m)
서해남부	앞바다	0.5~1.0	0.5~1.0
	면바다(북)	1.0~2.0	1.0~2.0
	면바다(남)	1.0~2.0	1.0~2.0
남해서부	앞바다	0.5~1.0	0.5~1.0
	면바다(서)	0.5~1.5	0.5~1.5
	면바다(동)	0.5~1.5	0.5~1.5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9:41	04:30
		22:29	17:23
여수		05:02	11:47
		17:45	23:27

◇ 생활지수

식중독	자외선	미세먼지
주의	보통	보통

◇ 주간 날씨

3(금)	4(토)	5(일)
14/24	16/22	16/21
6(월)	7(화)	8(수)
17/18	9/15	8/18

박광성 전남대병원 교수 한일비뇨의학회 회장 취임

박광성(사진) 전남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교수가 한일비뇨의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박 신임 회장은 지난달 27~28일 일본 쓰쿠바에서 열린 제39회 한일비뇨의학회 학술대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됐다.

한일비뇨의학회는 지난 1984년 일본 고베에서 제1회 학술대회가 열린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 교차로 개최하고 있다. 비뇨의학 분야의 학술교류 뿐만 아니라 문화적 교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박광성 교수는 제40회 한일비뇨의학회 학술대회 대회장으로 오는 2024년 11월 8~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

전남대박물관 이정민 학예연구사 ‘올해의 대학박물관인’

전남대학교박물관 이정민(사진) 학예연구사가 ‘올해의 대학박물관인’으로 선정됐다.

이정민 학예연구사는 2002년부터 전남대박물관에서 근무하면서 이론과 실무역량을 바탕으로 전시, 유물관리, 연구·교육 분야에서 대학박물관 발전에 기여했다.

박물관과 대학역사관의 상설 전시뿐 아니라 다양한 작가 초대전, 학교 전시 공간을 활용한 전시 기획 등으로 박물관 교육 활성화를 이끌었다. 대학 구성원은 물론 지역민이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박물관을 열린 문화예술의 플랫폼으로 확장했다.

이정민 학예연구사는 “대학박물관이 전시와 교육, 연구를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에 한 발짝 더 다



가서는 열린 문화예술의 창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수 대학박물관으로서 위상을 굳히고 있다. 한국대학박물관협회는 지난 1961년 대학박물관의 학술적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결성돼 전남대를 포함해 102개 대학박물관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1 FAX 062-222-4938, 222-4918

알림

- ▲스마트폰도 배우고, 인생2막 정보 공유 모임=완전 무료. 60대 이상 초보자 환영. 스마트폰 기초부터 영상편집까지 배우기+ 성공적 인생2막을 위한 정보 나누기. 금남로 전일빌딩(매주 수요일 오전 9시30분~12시), 남구 진월동 공유센터(매주 화·목 오전, 오후반). 010-2626-5018
- ▲광주 북구민을 위한 개인 무료 법률상담소=기초 생활수급자, 조손가정, 저소득층, 영세민, 교도소 복역자, 사회취약계층자 무료상담 010-6444-8572.
- ▲광주사·전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무료 상담=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으로 심리지원을 위한 무료상담 1670-9512.
-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프로그램 신청=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알선, 취업교통비 지원 등 취업지원 및 긴급원호, 숙식제공,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 ▲청소년전화 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학대 신고=연세든 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문제(알

- 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 상담 062-654-3802.
-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여,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임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 ▲지역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

- 0422.
-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모집

- ▲김대중 평화합창단 단원모집=성인(80명), 어린이(초 1~5년·40명) 단원, 31일까지 모집. 010-8242-7208.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랑,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한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 ▲플랫폼창업희망자 교육생 모집=스마트폰 사용 가능자 수시모집, 5~6명 이면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플랫폼창업동호회 062-511-

- 0030.
-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모집=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남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후문 80미터 010-4622-7838.
-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 모집=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061-320-7024.
- ▲시니어플래너지도사(자격반) 모집=사·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010-5522-9700.

부음

▲김상운씨 별세, 상봉(뉴스1 광주전남 대표)씨 형제상·재환(영광열병합발전 사장)씨 부친상=영광종합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일 오전 9시30분, 장지 영광 흥농읍 선영, 061-350-8044